

독학사 1단계 합격을 결정하는 필수 암기 키워드 - 국어 (통합본)

01 | 국어학

(1) 국어에 대한 이해

① 언어 연구의 필요성

- ㉠ 생활의 기본 수단. 원만한 사회생활
- ㉡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, 여러 분야에 큰 공헌

② 언어학의 본질

- ㉠ 언어학: 언어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하는 학문 분야
- ㉡ 문법: 언어 구조를 파헤쳐 뜯어보고 언어의 내적·구조적 현상을 기술

③ 언어 습득 이론

- ㉠ 경험주의 이론: 경험적 훈련에 의한 후천적 학습으로 이루어진다.
- ㉡ 합리주의 이론: 타고난 언어 학습 능력과 추상적인 선천적 지식에 의해 이루어진다. → 언어 습득의 균 일성, 언어에 대한 통찰성, 언어의 창조성

(2) 훈민정음 제작의 목적

- ① 훈민정음 서문: 일반 백성들을 문자 생활에 참여시키고자 함 [欲使人人易習 便於日用] → 애민 사상, 자주 사 상
- ② 훈민정음 창제 이후 서적: 『용비어천가』, 『월인천강지곡』, 『석보상절』, 『월인석보』, 『두시언해』, 『금강경삼 가해』 등
- ③ 훈민정음을 유일한 문자체계로 발전시킬 의도는 없었으며, 국한문 혼용을 염두에 둠

(3) '한글'의 유래에 대하여

① 한글 명칭: '한글'의 '한'은 '一', '大', '韓', '正'의 의미

- ㉠ 한글 명칭의 최초 사용: 1913년 3월 23일 조선어문화 창립총회
- ㉡ 한글 명칭의 실용화: 1913년 9월에 창간된 『아이들보이』지의 '한글 풀이'
- ㉢ 한글 명칭의 보편화: 1927년 한글학회의 전신인 조선어학회에서 간행된 『한글』

② 한글 명칭이 여러 번 바뀐 이유

- ㉠ '국문', '국어' → '한말', '배달말글': 정치적 상황과 관련됨
- ㉡ '배달말글' → '한글'
 - '배달' → '한': 음절 수가 간결, '한'의 뜻이 '심한', '대한제국'의 '한'과 연결
 - '말글' → '글': '글'이 문자와 함께 문자 언어까지 포괄하기 때문

(4) 표준어의 기능

- ① 표준어: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

② 표준어의 기능: 통일의 기능, 우월의 기능, 준거의 기능

(5) 언어 예절

① 높임법

- ㉠ 주체 높임법
 - 말하는 사람이 서술어가 나타내는 주어를 높이는 높임법
 - 용언의 어간에 높임의 어미 '-(으)시-'를 붙여서 표현
 - 높임의 용어가 따로 있는 경우: '있다 → 계시다', '먹다 → 잡수시다', '자다 → 주무시다'
- ㉡ 상대 높임법
 - 듣는 사람을 높이거나 낮추는 높임법
 - '해라체, 해체, 하게체, 하오체, 해요체, 하십시오체'로 구분
- ㉢ 객체 높임법
 - 동작이 미치는 대상(서술어가 나타내는 객체)을 높이는 높임법
 - 특수한 어휘: '드리다, 여쭙다, 말씀드리다, 모시다' 등

② 인사말

- ㉠ 만나고 헤어질 때: "안녕하십니까? 어디 가십니까?" (언어의 친교적 기능: 실제로 어디 가는지 궁금한 것이 아니라 안부를 묻는 정도)
- ㉡ 소개할 때
 - 가까운 사람을 덜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소개한다.
 - 손아랫사람을 손윗사람에게 먼저 소개한다.
 - 남성을 여성에게 먼저 소개한다.

③ **압존법**: 말하는 이보다 윗사람이지만, 말을 듣는 이보다 아랫사람인 주체에 대하여 그 높임의 정도를 낮추는 높임법

- 예) 할아버지, 아버지께서 오셨습니다. → 할아버지, 아버지가 왔습니다.

02 | 고전문학

(1) 총론

① 한국문학의 영역

- ㉠ 구비문학: "대대로 전해오는 말" (설화, 민요, 무가, 판소리, 민속극 등이 포함)
- ㉡ 한문문학: 한자 문명권의 공동문어, 민족문학으로 발전시키고자 노력
- ㉢ 국문문학: 국문으로 표현된 문학. 종류: 순수 국문문학(한글로 된 문학), 차자문학(향찰로 표기된 문학). 시조, 가사, 소설, 수필류(여성들의 문장이 주류를 이룸)

② 한국문학사의 전개

- ㉠ 고대: 처음에는 구비문학만 존재, 5세기 이전에 본격적인 한문학을 이룩
- ㉡ 중세: 한문학의 등장~쇠퇴까지의 시대, 17세기 이후에는 국문문학이 활발하게 창작
- ㉢ 근대: 1894년 갑오개혁에서 과거제도를 폐지하고, 국문을 공용의 길로 삼은 것이 근대문학 성립의 결정적인 계기

(2) 고전시가

① 「황조가(黃鳥歌)」

- ㉠ 고구려 2대 유리왕이 지은 고대 가요
- ㉡ 현전 최고(最古)의 개인 서정시, 『삼국사기』에 수록
- ㉢ 의태어 사용

② 「정읍사(井邑詞)」

- ㉠ 현전하는 유일의 백제 노래, 『악학궤범』에 수록
- ㉡ '달': 기다림과 그리움의 정서
- ㉢ 주제: 행상하는 남편을 기다리며 걱정하는 노래

(3) 향가(신라 시대)

① 우리말로 기록된 최초의 정형시

② 형식: 4구체(「서동요」, 「헌화가」, 「도솔가」), 8구체(「모죽지랑가」, 「처용가」), 10구체(「찬기파랑가」, 「제망매가」)

③ 수록: 『삼국유사』(14수), 『균여전』(11수)

④ 주요 작품

- ㉠ 「제망매가(祭亡妹歌)」: 월명사가 지은 10구체 향가로, 『삼국유사』에 수록. '떨어지는 낙엽': 죽은 누이, '한 가지': 혈육
- ㉡ 「처용가(處容歌)」: 처용이 지은 8구체 향가, 무가(巫歌), 『삼국유사』에 수록. 아내를 빼앗은 역신에게 관용의 정신을 베풀

(4) 고려속요

① 평민층에서 불렸던 민요적 시가

② 구전되다가 훈민정음이 창제된 후 기록·정착

③ 내용: 주로 남녀간의 사랑, 자연에 대한 예찬, 이별의 아쉬움 등 현세적·향락적 평민들의 인간상

④ 주요 작품: 「동동」, 「청산별곡」, 「가시리」, 「쌍화점」

⑤ 「쌍화점(雙花店)」

- ㉠ 전 4연 분절체 고려속요, 남녀상열지사(음사), 『악장가사』에 수록
- ㉡ 당시의 퇴폐적이고 문란한 성 윤리를 노골적·풍자적으로 그린 노래
- ㉢ 배경: 만두 가게, 절, 우물, 술집

(5) 경기체가

① 사대부가 한자로 기록

② 구체적 사물들을 나열하면서 객관적인 설명을 하는 교술시

③ 음수율: 3음절, 4음절

④ '경(景) 그 엇더□니잇고'라는 문구 포함

⑤ 「한림별곡(翰林別曲)」

- ㉠ 한림 유생들의 향락적 풍류 생활을 노래한 8장의 분절체
- ㉡ '경(景) 그 엇더□니잇고'의 후렴구
- ㉢ 경기체가의 효시로 가사문학에 영향을 줌, 『악장가사』에 수록

(6) 악장

- ① 개념: 궁중의 여러 의식과 행사 및 연례, 즉 나라에서 거행하는 공식적인 행사에 사용되던 조선 초기의 송축가
- ② 특성: 궁중의 목적 문학(금방 소멸), 교훈적 목적성
- ③ 내용: 조선 건국의 정당성 강조, 조선 창업과 왕의 업적을 송축, 왕의 만수무강 기원, 문물제도의 찬양, 후대 왕들에 대한 권계 등

(7) 시조

- ① 고려 중기에 발생하여 말엽에 완성된 형태로서, 조선 시대를 거쳐 지금까지 창작되고 애송되는 우리 국문학의 대표적인 장르
- ② 형식
 - ㉠ 3장(초장, 중장, 종장) 6구 12음보 45자 내외가 기본적인 정형시
 - ㉡ 음수율은 3·4조 또는 4·4조가 기초
 - ㉢ 4음보의 율격을 이루며, 종장의 첫 음보는 3음절로 고정
 - ③ 종류: 평시조, 엇시조, 사설시조

(8) 가사

- ① 3·4조 또는 4·4조 연속체로 된 4음보의 운문
- ② 임금에 대한 은총, 자연에서의 유유자적한 삶을 표현
- ③ 「상춘곡」, 「관동별곡」, 「사미인곡」, 「속미인곡」
- ④ 주요 작품
 - ㉠ 「사미인곡(思美人曲)」: 정철의 서정가사로, 「속미인곡」과 더불어 가사 문학의 극치를 이룬 작품. 고려 속요의 맥을 잇는 연군지사. 화자를 기녀에 비유. '괴시니' → 사랑하시니
 - ㉡ 「용부가(庸婦歌)」: 작자 미상의 4·4조로 된 조선 후기 가사, 풍자적·교훈적 성격. 여성들의 비행(非行)을 비판, 조선 후기 새로운 시대상을 사실적·서사적으로 반영
 - ㉢ 「안심가(安心歌)」: 최제우가 부녀자들을 안심시키려고 지은 가사. 동학혁명의 사상적 동력
 - ⑤ '동방의 이소'라고 칭하는 정철의 작품: 「관동별곡」, 「사미인곡」, 「속미인곡」

(9) 서사문학

① 설화문학

- ㉠ 「조신 설화(調信說話)」: 몽유록계 문학의 효시, 『삼국유사』에 수록. 「구운몽」(김만중), 「꿈」(이광수), 「잊어버린 사람들」(황순원)에 영향을 줌. 남가일몽, 한단지몽
- ㉡ 「도미처 설화(都彌妻說話)」: 「춘향전」의 근원 설화, 『삼국사기』에 수록. 백제 개루왕 때의 사람인 도미 이야기

② 패관문학

- ㉠ 민간의 가담과 향설을 토대로 한자로 기록함으로써 형성
- ㉡ 『파한집』, 『보한집』, 『역옹패설』, 『백운소설』

③ 가전체 문학

- ㉠ 물건을 의인화하여 사람들에게 경계심을 일깨워 줄 목적으로 창작
- ㉡ 「국순전」, 「국선생전」, 「죽부인전」, 「저생전」, 「공방전」

(10) 고전산문

① 소설

- ㉠ 임란 이전의 전기: 본격적으로 소설이 창작되었지만, 완전하지 않음 (『금오신화』)
- ㉡ 임란 이후의 완숙기: 한글소설이 비로소 출현 (『홍길동전』, 『구운몽』)
- ㉢ 군담소설: 『임진록』, 『임경업전』, 『박씨전』, 『최고운전』
- ㉣ 애정소설: 『숙향전』, 『옥단춘전』, 『춘향전』, 『숙영낭자전』

② 판소리

- ㉠ 주로 서민의 삶을 해학적으로 담고, 사회와 권력을 풍자함
- ㉡ 판소리 6마당: 춘향가, 수궁가, 심청가, 흥부가, 적벽가, 변강쇠가
- ㉢ 판소리계 소설: 비속어와 고사성어, 우리말의 생생한 느낌의 의성어·의태어 사용. 풍자적·해학적 인물 등장. 근원 설화 및 판소리와 밀접한 관련. 서민 의식의 발달상 반영. 표면적 주제와 이면적 주제가 다름

③ 주요 작품

- ㉠ 「양반전(兩班傳)」: 풍자소설, 사상적 배경: 실사구시(實事求是)의 실학사상, 북벌론 비판. 주제: 양반의 무기력하고 위선적인 생활에 대한 비판과 풍자. 양반 매매 문권 1: 문권의 엄격한 준서 조항으로 양반사류의 모습을 희화화. 양반 매매 문권 2: 가문에 기대어 무단을 자행하는 일그러진 양반의 형태 표출
- ㉡ 「운영전(雲英傳)」: 애정소설(염정소설), 몽유소설, 액자식 구성. 주제: 신분적 제약을 초월한 남녀 간의 비극적인 사랑. 고대소설의 보편적 주제인 권선징악에서 벗어난 비극적 소설
- ㉢ 「최척전(崔陟傳)」: 군담소설·영웅소설·한문소설. 주제: 전쟁으로 인한 슬픔의 재회.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사실적으로 반영됨
- ㉣ 「박씨전(朴氏傳)」: 군담소설, 설화적 근거의 변신 모티프(박색 → 변신 → 절색). 병자호란 패배를 문학적으로 보상받고자 하는 심리 반영
- ㉤ 「구운몽(九雲夢)」: 몽자류 소설의 효시, 양반소설의 대표작, 국문소설·이상소설. 근원 설화: 조신 설화. 유교(입신양명, 부귀공명), 도교(신선사상), 불교(핵심적 주제인 '공' 사상) 다룸. 주제: 인생무상과 불법귀의
- ㉥ 「배비장전(裵裨將傳)」: 판소리계 소설, 해학적·풍자적, 발치설화와 미귀설화가 근간이 됨. 주제: 양반의 위선을 폭로하고 조롱·풍자
- ㉦ 「춘향전(春香傳)」: 판소리계 소설. 근원 설화: 신원 설화, 암행어사 설화, 노진 설화, 남원고사. 특권계급에 대한 평민들의 저항, 근대의식 성장. 주제: 굳은 정절과 신분을 초월한 사랑
- ㉧ 「허생전(許生傳)」: 작가 박지원, 고대소설, 한문소설, 풍자소설. 몰락한 양반 주인공, 당시의 빈약한 경제사정 반영, 조선시대 지배계층의 위선적 행동 비판
- ㉨ 「홍길동전」: 최초의 국문소설. 봉건제도 개혁, 적서차별 타파, 이상국 건설

(11) 한문학

① 한문 한시의 실제

- ㉠ 신라 시대
 - 「秋夜雨中(추야우중)」: 근체시와 율시의 형식을 갖춘(5언절구). 타국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밤중에 내리는 비를 통해 묘사. 주제: 고국에 대한 그리움
 - 「登潤州慈和寺(등윤주자화사)」: 최치원의 7언율시의 한시, 중국 역사에 대한 최고의 정을 읊은 작품. 주제: 인생의 무상함에 대한 성찰
- ㉡ 고려 시대

- 「大同江(대동강에서)」: 정지상의 7언절구의 한시, 이별을 슬퍼하는 애상적 어조, 도치법, 과장법
- 「送人(송인: 임을 보내며)」: 정지상이 지은 5언율시, 「大同江」과 같은 정서를 노래한 작품. 주제: 임을 보내는 정한
- 「述人(술인: 임을 보내며)」: 정지상이 지은 5언율시, 「大同江」과 같은 정서를 노래한 작품. 이별은 만날 것을 기약하는 이별. 주제: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는 심정
- 「山居(산거: 산에서 사노라니)」: 이인로의 5언절구의 한시. 시간적 배경: 늦봄 한낮. 대구법: 기와 승구. 주제: 깊은 산속의 풍경
- 「夏일即事(하일즉사: 어느 여름날에)」: 이규보의 7언율시, 여름날의 한가로움과 권태로움을 노래. 대낮의 빛이 아니라,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구름 사이의 빛을 자신이라 표현
- 「山中雪夜(산중설야: 산속의 눈 오는 밤)」: 이제현의 7언절구. 주제: 설야에 산속 절간의 정경과 설 입송에 끌리는 작자의 심정
- 「讀漢史(독한사: 한나라 역사를 읽다가)」: 「한서(漢書)」를 읽은 소감의 글. 현실의 모순과 타락한 유풍(儒風)을 한탄
- 「浮碧樓(부벽루: 부벽루에 올라서서)」: 이색의 5언율시, 율시와 대구 표현이 중심, 역사와 인간의 무상함을 노래한 한시. 새로운 왕조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반대하지도 못한 시인의 우유부단함
- ㉔ 조선 시대
 - 「獨坐(독좌: 홀로 앉아서)」: 서거정의 5언율시, 자연물을 통해 화자의 처지와 내면 심리를 암시적으로 표현. '거문고의 소리', '화로의 불씨'를 통해 관직에 나가고 싶은 마음을 표출. 주제: 은거하는 삶에서 느끼는 고독
 - 「訪曹處士山居(방조처사산거: 산에 사는 조처사를 방문하여)」: 박순의 7언절구. 주제: 친구와의 이별
 - 「忠州石(충주석)」: 조선 중기 권필이 지은 7언고시, 사회 모순을 포착하여 현실주의 미학으로 승화. 탐욕스러운 세도가의 신도비를 세우기 위해 파헤쳐지는 돌과 그것을 나르는 민중을 나타냄
 - 「田畝(전사: 시골집에서)」: 조선 후기 실학자 박지원의 5언율시, 농촌의 사실적인 풍경 묘사. 주제: 농촌의 한가로운 풍경

② 한문 문장의 실제

- ㉕ 고려 시대
 - 「溫達傳(온달전)」: 김부식의 신분상승형 설화, 기전체 역사서. 입신양명을 통한 유교적 가치 실현. 주제: 신분을 초월한 사랑과 공주와 온달의 자아실현
 - 「上元伯住丞相書(상원백주상상서: 원나라 백주 승상에게 올리는 글)」: 이제현이 백주승상에게 충선왕의 방환을 요청하는 우국충정(憂國衷情)의 편지글. 3단 구성, 끊는 듯한 간결미의 문체
 - 「眞情寺記(진정사기)」: 공민왕 때 영밀공의 영정이 진정사에 봉안되자 목은 이색이 지은 글. 세상 사람들이 불교에만 집착하여 유교를 돌아보지 않음을 비판
- ㉖ 조선 시대
 - 「祭金而好文(제임이호문: 김이호를 제사하는 제문)」: 김이호의 죽음을 애도하는 제문으로 김이호를 보내는 작자의 안타까운 심정을 훌륭하게 표현
 - 「辭戶曹參議疏(사호조참의소: 호조참의를 사양하는 상소문)」: 김민중의 작품으로, 자신이 존중하는 인물(송시열, 송준길, 이유태)을 언급. 송시열이 탄핵을 받는 상황에서 출사할 수 없음을 밝힌 작품
 - 「夜出古北口記(야출고북구기: 밤에 고북구를 나가면서)」: 연암 박지원의 견문기, 한밤중에 만리장성을 넘는 감회를 서술한 글 → 간결하고 응축적인 연암 특유의 문체

(12) 구비문학

① 민요

- ㉠ 민중 속에 전승되어 온 비전문적인 향토가요, 3·4조(4·4조) 운율
- ㉡ 삶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에 대한 소명, 그리움, 슬픔, 기쁨 등의 주제

② 무가

- ㉠ 주술성, 신성성, 전승의 제한성, 오락성, 율문성
- ㉡ 판소리 발생의 토대가 되었고, 영웅소설 서사 구조의 원형을 제공
- ㉢ 고대의 제천의식에서 비롯되었다고 추정

③ 판소리

- ㉠ 주로 서민의 삶을 해학적으로 담고, 사회와 권력을 풍자함
- ㉡ 창사('소리')의 내용에는 극적 요소가 많고, 체제는 소설적이기보다 희곡적이며, 문체는 산문이 아닌 시가체(詩歌體) 구사
- ㉢ 풍자·해학 등의 골격적인 수법을 풍부하게 구사하고 있음

④ 민속극

- ㉠ 민간에서 행위로 전승되는 연극(무극·가면극·인형극)
- ㉡ 민속극은 피지배계층(민중) 다수의 삶과 사고방식에 깊이 관련되어 있음
- ㉢ 양반에 대한 비판, 풍자의 정도가 큼

⑤ 속담 및 수수께끼

- ㉠ 구비 전승됨
- ㉡ 단문(대체로 20음절 이내이며, 길어도 40음절을 넘지 않음)
- ㉢ 서사적 줄거리 등이 없음

⑥ 교술산문: 말 이외의 가락 등이 쓰이지 않음

03 | 현대문학

(1) 문학에 대한 총체적 이해

① 문학의 본질

- ㉠ 문학의 정의: 인생을 탐구하고 표현하는 창조의 세계
- ㉡ 문학의 기원: 모방 본능설, 유희 본능설, 흡인 본능설, 자기표현 본능설, 발생학적 기원설, 발라드 댄스설
- ㉢ 문학의 본질: 언어 예술, 개인 체험의 표현, 사상과 정서의 표현, 상상의 세계, 통합된 구조
- ㉣ 문학의 특성: 항구성, 보편성, 개성
- ㉤ 문학의 관점: 모방론(플라톤, 아리스토텔레스), 표현론(영감설, 장인설), 효용론(공리설, 쾌락설), 존재론

② 최근 30년간 북한소설의 창작 경향

- ㉠ 북한소설의 창작원리: 주체적 인간학 정립, 당성·노동계급성·인민성 구현, 종자론과 수령형상 창조; '산 인간'을 그림
- ㉡ 주체문예이론은 혁명적 수령관과 연결되며, 김일성의 항일투쟁과 관계

- ㉔ 북한문학의 창작 시기 구분: 해방 직후(사회 개혁기), 6·25 전쟁 이후(전후 복구와 건설기), 사회주의 제도 확립기(1959~1966), 주체사상 적립기(1967년 이후), 구소련 연방의 붕괴(1988년 이후), 동구권 변혁기(식량난 시기 ~ 오늘날)
- ㉕ 1970년대: 혁명역사소설, 토지개혁 투쟁, 6·25 전쟁 현실, 사회주의 현실, 장편역사소설
- ㉖ 1980년대: 인텔리 형상과 노동자의 전형 창조, 과학기술 혁신, 청년 전위의 주체적 등장, 여성의 자주성
- ㉗ 1990년대: 김정일의 형상 창조, 농촌에서의 삶의 가치 고양, 애정모티프의 등장, 과학기술의 문제와 소설 창조, 통일염원의 문학

(2) 현대시에 대한 이해

① 한국 현대시 개관

- ㉑ 1910년대: 최남선 등장(최초의 문예 주간지 「태서문예신보」), 계몽성과 교훈성 쇠퇴, 새로운 시인의 등장, 새로운 내용과 형식의 모색
- ㉒ 1920년대: 3·1 운동 실패의 좌절감, 퇴폐 풍조 유입, 프로문학과 국민문학과 등장, 시조부흥운동, 서정시의 정립, 감상주의
- ㉓ 1930년대: 카프 해체, 순수 서정시 지향과 옹호, 모더니즘 대두, 생명파·청록파 등장, 어류시인의 등장, 초현실주의·리얼리즘 등 다양한 기법 등장
- ㉔ 1940년대: 저항과 자기성찰의 문학, 전통에 대한 관심의 표출, 청록파와 생명파의 시 발표, 이념 논쟁의 심화, 민족주의적 경향
- ㉕ 1950년대: 전쟁체험의 형상화, 현실참여의식, 전통적 순수시 추구, 주지적 서정시 대두
- ㉖ 1960년대: 적극적 변혁의 의지 표현, 순수 서정과 낭만성을 강조한 경향시 대두
- ㉗ 1970년대: 현실 참여시 등장, 모더니즘적 경향

② 이상화와 김소월의 현실과 자연

- ㉑ 시관
 - 이상화: 식민지 시대의 작가로서 시대적·사회적 책임 강조, 현실·역사에 참여하여 양심 역설
 - 김소월: 도시문명에 대한 혐오와 자연 예찬, 시공간을 초월한 시혼의 불변성 강조
- ㉒ 시문학관
 - 이상화: 초기의 유미적·퇴폐적 성격 → 후기의 민족 현실에 대한 관심 고조로 저항의지를 노래
 - 김소월: 자연발생적 정감에 바탕을 두면서도 존재론적 측면을 강조, 전통 지향성

③ 한국 현대시 작품 감상

- ㉑ 「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」(이상화): 자연적 소재들의 비유를 통해 향토적 정서와 친근감, 촉각적·시각적 심상, 직유법·의인법. 주제: 국권 회복의 염원과 의구심
- ㉒ 「유리창」(정지용): 유리창(이승과 저승의 운명적 단절과 연결의 매개체), 외로운 황홀한 심사(역설법). 슬픔을 억제하는 차분한 어조, 선명한 시각적 이미지. '별'·'새': 죽은 아이를 상징. 주제: 죽은 아이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
- ㉓ 「바다와 나비」(김기림): 색채 대비를 통한 선명한 이미지 제시, 회화적 심상을 중시하는 주지적 모더니즘 시. 시각적 심상('흰 나비', '푸른 바다', '새파란 초생달'). 주제: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동경의 좌절과 냉혹한 현실 인식
- ㉔ 「성북동 비둘기」(김광섭): 선명한 감각적 이미지 제시(청각, 후각, 시각의 심상 대비). 비둘기를 의인화하여 인간과 자연의 문제를 대립적으로 설정. 주제: 파괴되어 가는 자연의 순수성에 대한 향수와 인간성 상실에 대한 비판
- ㉕ 「생명의 서」(유치환): 직선적 어조로 강한 의지 표현, 관념적 한자어의 사용. 현실 속의 자아는 삶의 본질을 모르고 회의하고, 본질적 자아는 삶의 본질을 파악함. 주제: 삶의 본질을 추구하려는 강한 생명 의지

- ㉠ 「와사등」(김광균): 수미상관 구성, 감각적 심상, 감각적 묘사와 비유를 통한 이미지 제시. 주제: 현대인의 고독감과 불안 의식
- ㉡ 「청노루」(박목월): 조사를 생략, 'ㄴ' 음의 반복 사용, 시선의 이동(원근법). 현실과 단절된 이상세계의 평화를 그림. 주제: 봄의 정경과 정취
- ㉢ 「깃발」(유치환): 색채의 대조('푸른 해원'과 '백로'), 공감각적 심상, 역동적 이미지, 의인법·도치법. 인간과 생명의 탐구에 주력, 깃발의 비유('아우성', '손수건', '순정', '애수', '마음'). 모순 형용: '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'. 주제: 이상향에 대한 향수와 그 좌절
- ㉣ 「진달래꽃」(김소월): 여성적 어조, 수미상관, '진달래꽃'은 시적 화자의 분신이며 임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상징, 비극적 상황을 절제된 어조로 표현. 주제: 이별과 한(恨)의 승화
- ㉤ 「절정」(이육사): 주제: 극한 상황의 역설적 극복 의지. 간결한 표현 속에 시적 의미를 응축함으로써 단호하고 강한 느낌을 줌. 모순 형용: '강철로 된 무지개'

(3) 현대소설에 대한 이해

① 한국 현대소설의 흐름

- ㉠ 신소설: 갑오개혁 이후 개혁운동의 내용을 담은 소설의 등장, 독자 대중의 확대, 출판기술의 발달, 개화 사상을 배경으로 발생
 - 친일성과 중국 비판, 낡은 풍습과 제도를 탈피, 고소설과 근대소설의 교량적 역할
 - 이인직: 「혈의 누」(최초의 신소설), 「은세계」, 「치악산」, 「모란봉」 등
 - 이해조: 「강상련」(「심청전」 개작), 「자유종」(정치소설, 토론소설), 「토의 간」, 「옥중화」(「춘향전」 개작) 등
 - 최찬식: 「추월색」(애정소설), 「안의 성」 등
 - 안국선: 「금수회의록」(정치소설, 연설문체) 등
- ㉡ 근대소설: 근대적 자아의 각성이 이루어진 문학, 귀족 중심이 아닌 서민계층이 향유하는 문학. 특징: 영웅적 형상의 약화, 전지적 서술자의 후퇴, 시간적 경향에서 공간적 경향으로 이행
- ㉢ 소설 구성(Plot)의 3요소: 인물, 사건, 배경
- ㉣ 1910년대
 - 이광수: 계몽적 민족주의, 유교적 가족제도 비판, 근대·고대적 요소 공존
 - 「무정」: 근대소설의 효시, 계몽문학, 섬세한 인물 심리 묘사, 주인공들이 지도자적 인물, 구어체
- ㉤ 1920년대: 특징: 장편보다 단편이 주류, 예술성에 치중, 일제 강점기의 궁핍과 애환을 다룸, 사실적 묘사
 - 김동인: 문학의 독자성 주장, 비속어와 사투리를 최초로 소설에 도입, 간결하고 개성적인 문체 도입, 과거형 시제 도입, 「창조」 창간. 주요 작품: 「감자」, 「배따라기」, 「광화사」 등
 - 현진건: 일제 강점기 우리 민족의 현실을 아이러니하게 표현. 주요 작품: 「운수 좋은 날」, 「빈처」, 「술 권하는 사회」 등
 - 염상섭: 일제 강점기 부정정신과 비판정신이 가장 투철한 작가, 주요 작품: 「삼대」, 「만세전」, 「표본실의 청개구리」 등
 - 나도향: 빈부와 신분의 차이 등을 통해 어긋난 남녀관계의 문제를 주로 다룸, 주요 작품: 「물레방아」, 「뽕」, 「병어리 삼룡이」 등
- ㉥ 1930년대: 특징: 단편에서 장편으로 바뀜, 순수문학, 심리·농민소설, 샴머니즘 문학 등장, 농촌 계몽 운동 활발
 - 채만식: 주로 아이러니 등 풍자적 기법을 사용, 역설적 효과, 전통지주와 서민계층의 몰락을 그림. 주요 작품: 「태평천하」, 「탁류」, 「레디메이드 인생」 등
 - 이효석: 섬세하고 감각적인 언어의 기교로 자연의 심미 세계 표현, 원시적인 에로티시즘 문학 구축, 주요 작품: 「메밀꽃 필 무렵」, 「돈」, 「분녀」 등
 - 유진오: 일제 강점기 지식인의 고민과 번뇌를 그림, 주요 작품: 「김강사와 T교수」, 「창랑정기」 등

- 이상: 초현실주의, 자학적 자의식의 세계에서 심리적 심층을 파고 든 특색 있는 작품을 남김, 주요 작품: 「날개」, 「종생기」, 「실낙원」 등
- 김유정: 농촌과 농민의 현실을 사실적으로 그려냄, 주요 작품: 「봄봄」, 「동백꽃」, 「소나기」 등
- 김동리: 휴머니즘 부각, 주요 작품: 「무녀도」, 「황토기」 등
- 정비석: 자연의 순수성에 결합된 인간 본능의 세계를 그림, 주요 작품: 「성황당」, 「제시제」 등
- ㉠ 1940년대: 특징: 문학사의 암흑기, 조선어 말살 정책으로 민족지와 순문예지 폐간. 주요 작가: 황순원, 안수길, 최명익, 최태웅 등

② 작품 감상

- ㉡ 「자유종」(이해조): 신소설, 토론체 소설로서 여러 등장인물의 주장을 순차적으로 나열
- ㉢ 「무정」(이광수): 국권회복을 위한 반봉건·반외세 정신과 근대화를 지향하는 계몽정신 강조. 주제: 애국 계몽기의 현실 직시와 국권 회복의 방향 제시
- ㉣ 「감자」(김동인): 사실주의적 기법, 자연주의적 경향, 하층 사회의 비속어 구사. '복녀(福女)' 명명의 반어, 주인공의 성격과 공간적 환경이 상관관계를 이룸. 주제: 빈곤과 무지가 빚어낸 인간의 파멸과 타락상에 대한 고발
- ㉤ 「운수 좋은 날」(현진건): 사실주의 단편소설, 비속한 말의 구어체 사용 사실감의 고조와 아내에 대한 애정, 반어, 상황의 아이러니. '설령탕'이 주는 효과: 비극성의 고조. 주제: 일제 강점기 가난한 하층민의 비참한 삶에 대한 고발
- ㉥ 「홍염(紅焰)」(최서해): 현실 고발적 성격의 신경향파 소설. 구성: 지주 대(對) 소작인 또는 공장주 대(對) 노동자. 비극적 결말의 작품
- ㉦ 김동인의 「감자」·「실연」, 현진건의 「꽃」·「방화」: 주제: 타향에서 겪어야 했던 우리 민족의 비극적 현실과 저항 정신
- ㉧ 「치숙(痴叔)」(채만식): 독백체와 대화체를 통한 반어적 표현, 식민지 시대 상황을 사실적으로 묘사. 주제: 지식인이 정상적으로 살 수 없는 사회적 모순과 노예적 삶의 비판
- ㉨ 「소나기」(김유정): 김유정의 등단작, 사실주의적 경향의 농촌소설, 작가 관찰자 시점. 주제: 일제 강점기 농촌 사회의 현실적 모순과 도착된 성 윤리 풍자
- ㉩ 「날개」(이상): 고백적·상징적 심리주의 소설, 1인칭 주인공 시점. 날개의 의미: 종속된 삶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수단과 의지. 주제: 자아의 심화 과정과 그 극복을 위한 몸부림

(4) 희곡과 수필

① 한국 근대극 개관

- ㉡ 우리의 전통극: 그림자극, 가면극, 인형극, 음악극(판소리)
- ㉢ 한국 신연극의 효시: 이인직의 「은세계」
- ㉣ 신파극
 - 감상적 주제, 통속적 오락
 - 최초의 근대 희곡: 조중환의 「병자삼인」
 - 개선·발전시키지 못해 외면하고 이에 대한 돌파구로 연쇄극(연극+영화) 등장
- ㉤ 1920년대: 사실주의 극 등장, 동경 유학생들의 활동, 토월회 등장, 학생극 번성
- ㉥ 1930년대: 신극 단체의 본격적 활동
 - 극예술연구회 활동: 신극 수립 노력, 기성극계 정화 시도, 리얼리즘 극을 주도, 유치진의 「토막」 공연
 - 대중극 시대: 대중적인 신파극의 전성기, 동양극장 등장
- ㉦ 해방 이후: 전국연극인 대회, 극예술협회 발족
- ㉧ 근대 신극운동: 극예술협회, 토월회, 극예술연구회

② 수필의 성격

- ㉠ 특징: 자신의 글, 표현의 문학, 붓가는 대로 써진 글, 서경·회고·서정의 문학, 불만과 걱정과 관용의 유로, 밖에서 얻은 것을 안으로 삼키는 문학
- ㉡ 수필문학의 묘미: 소설 같지도 시 같지도 않은 수필 같은 문학, '놀이'와 같은 정서

③ 작품 감상

- ㉠ 「멋」과 「수필」(피천득)
 - 「멋」: '멋'은 작고 소박한 내면의 아름다움에서 비로소 나오는 것이며, 이러한 '멋'들이 있어 각박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음
 - 「수필」: 수필은 원숙한 생활 체험에서 우러나오는 고아(高雅)한 글이고 독특한 개성과 분위기가 있어야 하며, 균형 속에서도 파격(破格)을 할 줄 아는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함
- ㉡ 「오척단구(五尺短軀)」(이희승): 작은 키로 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이야기. 작은 키가 때로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어려움을 주긴 하지만 큰 인물이 되는 것에는 문제가 되지 않음
- ㉢ 「목근통신(木槿通信)」(김소운): 서간 수필, 일본 지성인들의 양심에 호소하며 충격을 준 글. 일제 강점기와 6·25 전쟁을 겪으면서 일본에 대해 느낀 바를 진솔하게 써내려간 수필